

| | | |
|---|--|---|
|  | <h1>보 도 자 료</h1> <h2>2.15(월) 조간부터 보도 가능</h2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래창조 금융 · 따뜻한 금융 · 튼튼한 금융 |
|---|--|---|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------|
| 작성부서 |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| | | |
| 책 임 자 | 안창국 과장 (2156-9900) | 담 당 자 | 송병관 사무관 (2156-9898) 이진영 사무관 (2156-9892) | |
| 배 포 일 | 2016. 2. 12.(금) | 배포부서 | 대변인실(2156-9543~48) | 총 7매 |

제 목 :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

1. 추진 배경

-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
 -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업계·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/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음
- 그간 T/F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

※ T/F에서 제기된 주요 불편 사례

- ① 투자자의 입장에서 ISA 가입·운용지시·자산교체 등을 중립적으로 조언 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채널이 부족
- ② 은행(신탁형ISA)과 증권회사(일임형ISA)가 제공하는 ISA 관련 서비스가 달라 어느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
- ③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는 ISA에 가입할 수 없음
- ④ 어떤 회사의 ISA상품이 좋은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고 선택이 곤란

➡ 투자자들이 ISA를 활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산관리산업 관련 제도·정책 개선을 추진

2. ISA 활성화 방안

가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

- (현황 및 문제점)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음
 -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·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 →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만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
 -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

일임형ISA·신탁형ISA 비교

| 구 분 | 일임형 ISA(증권) | 신탁형 ISA(은행, 증권)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 징 | 구체적 운용지시 없이도 가입 가능 → 전문가에 의해 표준화된 상품 | 구체적 운용지시 필수 →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 |
|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| 허 용 | 금 지 (별도 자문 형태로는 가능) |
| 편입상품 교체 | 일임업자에 위임 가능 | 투자자 지시 필수 |
| 상품내용 홍보 | 허 용 | 금 지 |

- (개선방안)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허용
- (조치사항) ① 은행 겸영 업무로 “자본시장법 시행령(§98②)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” 추가(은행업 감독규정 개정, 3월 초)
 - ②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 등록(3월 초 일괄 등록 신청서 접수 → 3월말 일괄 등록 절차 진행)

나 일임형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 허용

- (현황 및 문제점) 투자일임·신탁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* 투자자들이 IS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방문이 필수적

* 온라인 가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업을 활성화 할 경우 1:1 계약인 투자일임·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,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

□ **(개선 방안)** 일임형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

* ① 온라인 계좌개설 및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체결 → ② 운용지시 → ③ 주기적 자산관리 보고 → ④ 해지

○ 온라인 계약체결을 허용하되 분산 투자 의무,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

□ **(조치 사항)**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 마련(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, 2/4분기 중*)

* 증권회사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가 정착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결정

다 일임형ISA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(안) 마련

□ **(도입 목적)** 일임형 ISA 계약 체결·운영 등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함으로써,

○ 일임형 ISA제도의 가입자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,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·안착을 도모

□ **(주요 내용)** 모델 포트폴리오의 요건 및 사전보고·공시 의무, 투자 권유 절차, 온라인 가입시의 표준 계약 절차,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을 정함

① 모델 포트폴리오 요건 및 최저 보유 개수·공시 의무 등

- **(모델 포트폴리오의 개수)** 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으로 구분*하고, 각 유형별 2개 이상(초저위험은 1개)의 모델포트폴리오를 구비

* (예) 초저위험 / 저위험 / 중위험 / 고위험 / 초고위험

- **(분산투자)** 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%, 같은 상품군*의 편입비중 50%(펀드는 100%) 이내로 분산하여 자산을 배분

* 상품군 : [예금·적금·예탁금·RP] / [펀드·리츠] / [파생결합증권]

- **(사전보고·공시)** 모델 포트폴리오와 ISA운용 관련 사항을 금감원에 사전보고하고 모델 포트폴리오 공시

* 금투협회에 ISA 통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임업자별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역·수익률 등 비교공시 활성화

② 표준 투자 권유 절차 마련

- **(모델 포트폴리오 제시)** ISA 가입 권유시 투자자의 성향 분석 후 투자자에 적합한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도록 의무화

③ 온라인 가입시의 표준 계약 절차 제시

- **(시스템)** 계약 체결, 투자자별 운용내역 확인,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지시 등을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- **(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 장치)** 가입시 일임형ISA 관련 동영상 교육(5분 내외) 의무화,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, 계약후 3일 이내 투자자에 대해 ISA 가입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는 해피콜 실시 등

④ 고객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

- **(투자자 운용지시권 확보)** 투자자가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자의 요구 반영을 의무화

- **(주기적 자산 리밸런싱)** 매 분기마다 각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성·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모델 포트폴리오 내 편입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는 체계화된 내부 통제시스템*을 구축

* 예) 자산운용 전문가, 애널리스트 등이 참여하는 자산배분결정위원회 설치·운영

3. 기대 효과

①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(ISA한정)을 허용하여 투자자 선택권 확대

①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

② 이를 위해 국민 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·증권간 칸막이를 제거

③ 이에 따라, 투자자들은 은행·증권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

② 일임형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을 통한 투자자 편의성 제고

-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계좌개설·계약체결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ISA 활용 관련 편의성을 대폭 증진

③ 일임형ISA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산증식 문화형성을 도모

- 투자자 성향 분석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단기 수익률 위주의 단일상품 구매가 아닌 건전한 분산투자 문화를 정착
- 복수의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기적 자산 조정(리밸런싱)을 의무화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고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
- 분산투자자와 투자자의 운용지시권한을 보장함에 따라 자산구성과 수익률 제고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문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켜 금융상품 자문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

4. 향후 추진 일정

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시행 관련

① 금융권 ISA 출시 준비 상황 점검 회의(잠정)

- * 일시 / 장소 : '16.2.16(화) 15:00~ / 금융위 대회의실
- 참석 : 금융위원장, 금감원 부원장, 은행연합회장, 금투협회장, 은행(5), 증권(5)
- 논의 내용 : ISA 준비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

② ISA 모범규준 시행 및 모델포트폴리오 사전 보고

- * 사전보고 2.12일~21일 → 모범 규준 시행 2.22일 → 모델 포트폴리오 사전보고 절차 2.22일~

③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등록

- *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(3월 초) →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 일괄 접수(3월 초) →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라이선스 부여(3월말)

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출시(3.14일)

- * 다만, 은행의 일임형ISA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등록 후 출시

②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 후속조치과제 발표

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(3월 초)

- * 자문업 범위 확대, IFA 도입 방안, 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
- 투자자들이 ISA를 포함하여 자산운용 전반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투자대상 자산에 관한 중립적·전문적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

②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(3월 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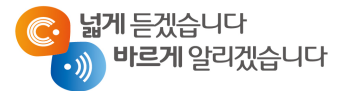
- * 공모펀드 성과 보수 활성화, 펀드 비교·평가시스템 포털 개설(펀드 다모아), 펀드 판매채널 확대 등
- ISA에 편입될 대표 상품인 펀드가 보다 신뢰성 있게 운용되고, 투자자들이 손쉽게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

③ 금융투자상품 다양성 제고 방안(4월 중)

- * 공모펀드 파생상품 위험액 산정 기준 개선, ETF 상품 다양화 방안, 사모투자 재간접(공모)펀드 도입 방안 등
- 손실 제한형 상품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이 ISA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 마련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

- **(개념)** 투자일임업자가 해당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*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

* 투자대상자산의 종류·비중·위험도 등이 포함된 포트폴리오

- 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, 모델 포트폴리오의 범위 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개별 상품의 편입·교체를 투자자 대신 수행해 준다는 점에서 신탁형 ISA*와 차이

* 개인이 직접 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목과 투자규모 등을 결정하고 운용을 지시

□ **(운영방식)**

- ① **(모델포트폴리오 제시)** 일임업자가 투자자 성향과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
- ② **(투자자의 운용개입·지시권)** 투자자는 일임업자가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수시로 조정·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
- ③ **(투자자 사전 통지)** 일임업자가 계좌내 상품 편입·교체시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
- ④ **(주기적 자산 리밸런싱)** 분기별 1회 이상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, 안정성 및 투자자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투자대상자산 리밸런싱 실시

<신탁형ISA·일임형ISA·일반적 투자일임 비교>

| | 신탁형 ISA (=일반적 특정금전신탁) | 일임형 ISA | 일반적 투자일임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운용재량 | 투자자가 종목·수량까지 모두 지정 | 투자자가 위임해 준 자산 종류·비중·위험도 내에서 재량 有 |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포괄 위임 가능 |
| 모델 포트폴리오 | 제시 금지 | 제시 의무화 | 제시 가능 |
| 리밸런싱 | 의무사항 없음 | 분기1회 이상 재배분 | 분기1회 이상 재배분 |
| 투자자 통지 | 의무사항 없음 | 자산 처분·취득 시 사전통지 의무 | 의무사항 없음 |
| 광고·홍보 | 운용방식(모델 포트폴리오 등) 광고 불가 | 광고 가능 | 광고 가능 |
| 온라인 계약 | 불 가 | 가능하도록 개선 | 불 가 |